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 2013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결과, 90개 대학 인증 획득 ..... 03
-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06
-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가차분 소총 결과 ..... 10
-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리 강화 ..... 12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 실시 현황 ..... 14
- 2013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15
-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 심포지엄 ..... 18
- 교육부 퇴직 공직자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임 제한 추진 ..... 20

02 국회 소식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입전형 및 시간강사법 관련) 교문위 통과 ..... 2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교문위 통과 ..... 22

03 대교협 소식

- 대교협 제194차 이사회 개최 ..... 23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김영호 배재대 총장 선출 ..... 24
- 교육협력위, 대학재정 전문가 심층 토론회 ..... 25
- 교육협력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학사정관과 학부모 정책 간담회 ..... 28
- 제4회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 포럼 ..... 30
- 2013년 대학글로벌연장학습 사업 결과 보고회 ..... 31

04 기타

- [2013 전국 대학 직능단체 현황] 자료집 발간 안내 ..... 38



# 謹賀新年

人心齊, 泰山移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 -논어-

올해 대학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갑오년 새해엔  
 총장님 대학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뜻하신 일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거석 배상  
 전 부 대 학 교 총장



01 고등교육 정책 동향

##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90개 대학 인증 획득

- 96개 신청대학 중 87개 대학 인증, 3개 대학 조건부인증, 6개 대학 인증유예
- 2013년까지 전체 대상 대학 194개 중 157개 대학(80.9%) 참여
-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

###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평가원)은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 명단 >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지역	구분	대학
경남	사립	경남대학교	전남	사립	목포가톨릭대학교	대전	사립	우송대학교
경남	사립	가야대학교	대전	사립	배재대학교	전북	사립	원광대학교
경기	사립	가천대학교	부산	국립	부경대학교	경북	사립	위덕대학교
서울	사립	가톨릭대학교	부산	사립	부산가톨릭대학교	경기	사립	을지대학교
충북	사립	건국대학교(글로벌)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인천	사립	인천가톨릭대학교
충남	사립	건양대학교	부산	사립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	사립	장로회신학대학교
경남	국립	경남과학기술대	부산	사립	부산장신대학교	전북	사립	전주대학교
강원	사립	경원대학교	서울	사립	삼명대학교	충남	사립	충주대학교
경북	사립	경운대학교	서울	사립	상명대학교	경기	사립	차의과학대학교
대구	사립	계명대학교	충남	사립	상명대학교(천안)	경남	국립	창원대학교
서울	사립	고려대학교	강원	사립	상지대학교	충남	사립	청운대학교
세종	사립	고려대학교(세종)	서울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	사립	청주대학교
부산	사립	고신대학교	서울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전남	사립	초당대학교
강원	사립	관동대학교	인천	사립	서울신학대학교	서울	사립	총신대학교
서울	사립	광운대학교	서울	사립	서울여자대학교	경기	사립	평택대학교
서울	사립	국민대학교	경기	사립	서울장신대학교	경기	국립	한경대학교
서울	사립	그리스도대학교	충북	사립	서원대학교	충북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충남	사립	금강대학교	충남	사립	선문대학교	서울	사립	한국성서대학교
경북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충북	사립	세명대학교	경기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주	사립	남부대학교	서울	사립	세종대학교	서울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충남	사립	남서울대학교	경기	사립	수원대학교	강원	사립	한라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울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대전	국립	한밭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대학교	전남	국립	순천대학교	서울	사립	한성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한의대학교	서울	사립	숭실대학교	경기	사립	한세대학교
경기	사립	대진대학교	부산	사립	신라대학교	경기	사립	협성대학교
서울	사립	동덕여자대학교	경북	국립	안동대학교	광주	사립	호남대학교
부산	사립	동명대학교	경북	사립	영남대학교	서울	사립	홍익대학교(서울)
부산	사립	동아대학교	경북	사립	영남신학대학교	세종	사립	홍익대학교(세종)
부산	사립	동의대학교	경남	사립	영산대학교			
경기	사립	명지대학교	전북	사립	예수대학교			
대전	사립	목원대학교	경기	사립	용인대학교			

-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는 교육수요자 및 일반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질 평가를 통한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96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차년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 대학평가인증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는 96개 신청 대학 중 87개 대학 '인증', 3개 대학 '조건부인증', 6개 대학 '인증유예'로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신설 2007.10.17)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정 2008.2.17. 대통령령 제21163호)

- 인증평가 과정에서 발굴된 대학운영의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증 모범사례 및 특화대학 >

대학명	모범사례
<b>인증 모범사례</b>	
가톨릭대학교	효과적인 성과관리중심의 특성화 사업
경동대학교	취업보장 취업 프로그램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국민대학교	사제동행세미나 교과목 개설 운영
금오공과대학교	자체평가 환류 시스템 운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대진대학교	감사관리 프로그램
동아대학교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삼육대학교	비전드림 - 삼육 MVP 인증교육에 대한 기반한 사회봉사
상지대학교	자체평가 환류시스템
서울여자대학교	바른 인성 교육과정
송실대학교	ALC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
영남대학교	훌륭한 교수·학습지원시설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통합 교양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연계 교양과목 개발
한국의국어대학교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단계별 글로벌 특성화 교육
한성대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b>특화대학</b>	
우송대학교	아시아권 전문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특화대학

###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절차

- 평가원은 96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4개 평가단, 120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평가과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증 절차를 따랐다.
  -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대학 방문 평가
  - 평가결과검증 : 대학 및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
  -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 대학별 이의신청 접수 및 수용여부 논의
  - 평가단장 최종 검토 : 평가단별 결과 최종 확정
  -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 2011~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

- 2011년에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3년 현재 총 194개 대상 대학 중 157개 대학(80.9%)이 신청하였으며, 평가결과 151개 대학이 인증(인증 148개교, 조건부인증 3개교), 6개 대학이 인증유예 판정을 받았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 대학에는 자기점검의 기회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사회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증과 사회적 공신력 부여
  - 국가적으로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국제사회에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통한 국가간 학력인정 및 교류협력 증진 기반 구축

※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http://www.kcue.or.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
-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
-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
- 논술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적성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
- 고른기회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
- 2015학년도부터 정시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 금지 실시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전국 198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여 발표하였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하여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시행을 권고하였으며, 정원의 특별전형의 경우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여 각 대학들이 수립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수시는 학생부·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

- 핵심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설계
-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 38.4%, 종합 15.6%),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31.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204,860명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118,905명을 선발

구분	전형유형	'15학년도	'14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38.4%)	116,110명(30.6%)
	학생부(종합)	59,284명(15.6%)	46,932명(12.4%)
	논술 위주	15,107명(4.0%)	17,737명(4.8%)
	실기 위주	17,359명(4.6%)	9,551명(2.5%)
	기타	6,007명(1.6%)	60,890명(16.0%)
소계		<b>243,333명(64.2%)</b>	<b>251,220명(66.2%)</b>
정시	수능 위주	118,905명(31.4%)	91,530명(24.1%)
	실기 위주	14,793명(3.9%)	17,770명(4.7%)
	학생부(교과)	569명(0.2%)	3,226명(0.9%)
	학생부(종합)	1,335명(0.4%)	2,256명(0.6%)
	기타	172명(0.0%)	13,512명(3.6%)
소계		<b>135,774명(35.8%)</b>	<b>128,294명(33.8%)</b>
합계		<b>379,107명(100.0%)</b>	<b>379,514명(100.0%)</b>

**2.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2.0% 감소한 64.2% 선발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79,107명)의 64.2%인 243,333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35.8%인 135,774명을 선발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15학년도	243,333	64.2	135,774	35.8	379,107
'14학년도	251,220	66.2	128,294	33.8	379,514

**3.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

-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은 전년보다 10.1%p 증가하였으며, 전체 모집인원의 54.6%인 206,764명을 선발

구분	전형유형	'15학년도	'14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38.4%)	116,110명(30.6%)
	학생부(종합)	59,284명(15.6%)	46,932명(12.4%)
정시	학생부(교과)	569명(0.2%)	3,226명(0.9%)
	학생부(종합)	1,335명(0.4%)	2,256명(0.6%)
합계		<b>206,764명(54.6%)</b>	<b>168,524명(44.5%)</b>

**4. 논술 모집인원은 소폭 감소**

-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는 전년 수준이며 모집인원은 17,489명으로 전년보다 소폭(248명) 감소

구분	'15학년도		'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29개교	17,489명	28개교	17,534명
정시	0개교	0명	1개교	203명
합계	29개교	17,489명	29개교	17,737명

- \* 신규 :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
- \* 폐지 : 국민대, 동국대(경주),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서울대

**5. 적성시험 실시 대학 수 및 모집인원 대폭 감소**

-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은 13개 대학 5,850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

구분	'15학년도		'14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13개교	5,850명	30개교	19,420명
정시	0개교	0명	0개교	0명
합계	13개교	5,850명	30개교	19,420명

**6. 고른기회 모집인원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 고른기회 모집인원은 정원 내와 정원 외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5.2% 증가

구분	모집인원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정원내	4,805명	0명
정원외	25,591명	28,904명
합계	30,396명	28,904명

**7. 정시 분할모집 대학 감소**

- 2015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 모집단위 내 구간 분할모집이 금지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군별 분할모집 대학 감소

구분	가	나	다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15학년도	27개교	23개교	17개교	37개교	28개교	28개교	47개교
'14학년도	14개교	18개교	11개교	28개교	37개교	32개교	68개교

- \* '15~'16학년도에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개 구간까지 분할 모집 가능 ('17학년도부터는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 금지)

## 8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 확대
  - '14학년도 59개 대학 3,788명 → '15학년도 66개 대학 5,074명 선발

구분	'15학년도		'14학년도	
	대학수(교)	모집인원(명)	대학수(교)	모집인원(명)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외)	66	5,074	59	3,788

\*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가처분 소송 경과

관련 10개 대학과 교육부 등과 공동으로 소송 대응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예정대로 발표’(13. 12. 20)

## □ 추진 경과

- '13.8.28 :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교육부)
- '13.9.24 : '15~'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발표(교육부)
- '13.9.24 : '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공표
- '13.12.9 : '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 피신청인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회의회, 10개 대학(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 '13.12.11 :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응 회의
  - 대교협과 8개 대학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 '13.12.20 :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 '14.1.10(예정) : 소송인 측, 추가자료 제출 및 소송 취하 여부 결정 예정

## □ 주요 내용

- '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주요 내용
  - 10개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사전예고나 경과조치없이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선발인원을 과도하게 감축하여 이 전형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됨
  -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의 ‘특기자 전형’ 부분의 효력을 정지
  -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특기자 전형’의 발표를 금지

※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전방안'('13.9.24 발표) 중 가치분 관련 내용

-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또한 모집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
- 특기자 전형은 문제가 있지만, 특기·소질(예체능, 어학, 수학, 과학, 발명, IT 등)에 의한 선발이라는 점, 그간 준비해 온 고 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다만,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모집규모 축소 유도

※ 대교협의 '20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13.9.24 발표) 중 가치분 관련 내용

- 대입전형의 간소화 추진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함  
- 외부실적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꿈과 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장
- 특별전형 중 특기자 : 기본사항 11페이지  
-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 단위와 연계하여 자율 결정함

- '15학년도 '영어특기자 전형' 현황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비고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특기자	73개교	4,325명	37개교	2,045명	

※ 대학수 36개교 감소, 모집인원 2,280명 감소

□ 향후 추진 방향

- 관련 10개 대학과 교육부 등과 공동으로 소송 대응
- '1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예정대로 발표('13.12.20)

##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리 강화

### 권익위, 교육부·대교협에 '공공성 제고방안' 권고

-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한 부정·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대학의 관리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격 검증도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권익위에 따르면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대학 측의 허술한 서류 검증, 부정행위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 규정 등으로 졸업·성적증명서의 위조나 변조,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허위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한 부정 입학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실제로 지난해 7월 검찰 수사 등에 의하면 한 학부모는 자녀가 외국에서 고교과정 3년을 이수한 것처럼 재학기간을 조작하는 등 재학·성적증명서를 위조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외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를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켰다.
- 아울러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도 일반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에 재학한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 때문에 ‘불가피한 해외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기회 결손의 보상’이라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부에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입학관계자의 특별전형 관리 역량 강화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재학기간이나 외국 체류사유 등 지원자격 강화를 권고했다.
- 아울러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입학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자는 일정기간 대입전형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도 강화하도록 했고 대학이 자체 운영 중인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 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학 부정이 줄고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동 지원자격 설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정보 공유 방안 등 효율적인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행을 위해 대학과 합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 실시 현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2,251명의 대입지원방법 위반자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 대입지원 위반자 검색 결과 (총 위반자 수 : 22,467명, 기준일 : 2013. 12. 24(화))
    - 수시지원 6회 초과자 : 770명
    - 수시모집 예치금 이종납부자 : 20,638명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자 : 411명
    - 정시모집 동일 모집군 복수 지원자 : 648명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 현황 (총 예방자 수 : 22,251명, 기준일 : 2013. 12. 24(화))
    - 수시지원 6회 초과자 예방 : 770명
    - 수시모집 예치금 이종납부자 예방 : 20,633명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자 예방 : 296명
    - 정시모집 동일 모집군 복수 지원자 예방 : 552명
- 대교협은 계속적으로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 2013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고교-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niversity-level Program: UP)은 고등학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진학 후 학점이나 대체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교협은 2007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 □ 협약대학 현황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은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동참하는 협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총 44개교와 협약을 맺고 있다.

< 협약대학 현황\_2013.12 기준 >

연도 지역	2013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대학 수	대학 명
서울	6	가톨릭대, 삼육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기	8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성균관대, 안양대, 한북대, 한국항공대
인천	2	인천대, 인하대
강원	1	강원대
충청	10	건양대, 배재대, 상명대, 영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밭대, KAIST
경상	10	경북대, 경상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동아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대, 경남대
전라	6	목포대, 순천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	1	제주대
합계	44	

### □ 표준교육과정 개발 현황

대교협은 어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 등이 공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교육과정은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2013년 현재 5개 과목 23개 교과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 표준교육과정 개발 현황 >

	구분	교과명
수학	미적분학	미적분학 I·II
	통계학	
과학	화학	일반화학 I·II, 일반화학실험 I·II
	생물	일반생물학 I·II, 일반생물학실험 I·II
	물리	일반물리학 I·II, 일반물리학실험 I·II
	과학사	
	컴퓨터과학	
	환경과학	
국어	글쓰기, 문학	
영어	영작문	
사회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 경영학, 한국사 교과는 현재 검정 중

### □ 2013년 '겨울방학' 운영

- 2013년 '겨울방학' 기간에는 협약대학(44개교) 중 18개 대학으로부터 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17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7개 대학은 11월~12월에 걸쳐 수강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12개 대학, 40개 교과와 개설이 확정되었다.
-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은 12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에 들어간다.

< 2013년 '겨울학기' 운영 대학 현황 >

대학명	교과수	교과명
가톨릭대	3	미적분학 I, 일반생물학 I, 미시경제학
강남대	2	(특별) 글쓰기, (특별) 영작문
단국대	9	미적분학 I, 일반화학 I, 일반물리학 I, 글쓰기, 영작문 (특별) 미적분학 I, (특별) 일반물리학 I, (특별) 글쓰기, (특별) 영작문
부산대	3	일반화학 I, 일반물리학 I, 미적분학 I
삼육대	1	일반화학 I
순천대	1	미적분학 I
이화여대	1	영작문
인하대	4	일반물리학 I
전주대	4	일반화학 I, 일반물리학 I, 글쓰기, 영작문
제주대	2	미적분학 I, 미적분학 II
충남대	1	일반화학 I
한남대	9	(특별) 미적분학 I, (특별) 통계학, (특별) 일반화학 I, (특별) 일반물리학 I (특별) 컴퓨터과학, (특별) 글쓰기, (특별) 영작문, (특별) 미시경제학, (특별) 거시경제학
12개 대학	40	

\* '(특별)'은 해당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고3 학생 대상 프로그램임

##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 심포지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12월 18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학특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은 '대학특성화 방향과 추진전략 탐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성화지원센터소장이 특성화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소개에 이어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이 '대학특성화와 지역대학육성방안',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대학특성화와 산학협력', 주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개발·운영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대학특성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토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대학 특성화 방안에서처럼 대학 구조조정을 앞세워서는 특성화 사업이 꾸준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정차근 호서대 로봇자동화공학과 교수는 “대학 특성화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문화와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성화를 내세웠던 대학들이 이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특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특성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면 각 대학에 맞는 특성화 역량을 발굴할 수 없다. 결국 정부지원이 끝나면 대학 특성화도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특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특성화'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다.

□ 토론회를 지켜보던 청중들 가운데서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재은 가천대 교수는 “대학 특성화 사업안을 살펴보면, 제목은 대학 특성화인데 성과지표는 정원감축”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성화를 고민하기보다 정원감축을 고민하게 된다. 이 사업에서 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대학 특성화인지 정원감축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 교육부는 구조조정과 특성화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 지역대학 육성과 신진용 사무관은 “사실 특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구조 개혁을 위한 사업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를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수반되거나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측면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선 강력한 상대평가를 통해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교육부의 사업 예산을 두고 눈먼 돈이라고까지 부른다. 대학이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을 세우면 대학 특성화는 문어발식 확장만 지속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특성화가 정책적으로 오래 유지되려면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특성화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납세로 이루어진 만큼 세금에 화답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한 상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11월 정부는 교수 비율 등 일반적인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특성화 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은 총 25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교육부는 2014년 1월 기본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제6회 특성화심포지엄 : 대학특성화 방향화 추진전략 탐색’ 자료집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 특성화 알리미 홈페이지([www.hiedumap.net](http://www.hiedumap.net))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퇴직 공직자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임 제한 추진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26일(목)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 공정성 강화 및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 이에 교육부는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이상에 속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이 제한된다.

□ 또한, 교육부는 금번 행동강령 개정시,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으로의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다.

02 국회 소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2.26)

법안심사소위 상정 법률안 논의 및 통과된 내용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시 최종 개정안 안내 예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 대입전형 및 시간강사법 관련

- 제안자 및 발의일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3. 12.)
- 제안 주요내용
  - 가.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함(안 제34조의5제1항).
  - 나.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함(안 제34조의5제2항).
  - 다. 학교협의체 및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4조의5제4항).
  - 라. 강사와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함(안 법률 제11212호 부칙 제1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안자 및 발의일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13. 12.)
- 제안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 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함(안 제12조).
  - 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 바.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학교 출신자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 사.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안 제21조).

## 03 대교협 소식

## 대교협 제194차 이사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12월 20일(금)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실에서 제19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재대학교 김영호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4년도 대교협 정기총회를 2014년 2월 5일(수)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8일 취임하는 제17대 임원 개선을 위한 선출 전형위원회를 동 이사회로 전환 구성하여 특성별·지역별·설립별 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2014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시간강사법 및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추진경과·현황,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 사업 및 201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가처분 소송 경과, 대교협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계획, 특별위원회 및 대학교육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기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촉식

## 대학평가인증위원장에 김영호 배재대 총장 선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2월 16일 오후 2기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영호 배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년이며 대교협 당연직 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관련 인증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평가방향과 결과에 대한 처리와 활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발족된 1기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대학이 인증평가를 신청하면 각 필수지표와 일반지표를 평가해 해당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공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인증평가 결과가 정부의 대학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다.
- 김 위원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곧바로 연계되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계 인사 5명, 산업계·사회단체 대표 5명, 정부·공공기관 대표 3명, 대학평가 전문가 3명, 대교협 대학평가위원장 등 17명으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 교육협력위, 대학재정 전문가 심층 토론회

대학 등록금, 적립금 등 대학재정 관련 현안 논의  
대학재정 전문가 및 전국대학의 기획처장 참여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12월 27일(금) 프레지던트호텔 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적립금 및 이월금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의 기획처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기획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학등록금의 수준과 등록금 인상 문제, 대학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대책 등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쟁점과 적립금 운영 현황 및 제한 조치의 문제, 적립금에 대한 오해 등 대학적립금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표 1: 대학 등록금의 현황과 과제(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대학 등록금 수준, 결정주체, 부담주체 등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 볼 때가 되었음.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학생당 교육비가 감소하고 등록금 비중도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등록금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다른 재원의 확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자금의 증

대에 의한 것이라는 점임

- 등록금 동결 이후 대학재정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재정규모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운영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대학등록금 책정 공개 및 등록금 상한제도 등의 정책이 대학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끼침
-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본 결과, 해결책으로 1)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2) 등록금 책정에서의 대학 자율성 존중, 3) 국가의 장기적·미래지향적 방안 필요, 4) 등록금 성격의 재정, 5) 합리적 등록금 산정방법 구안, 6) 개별대학의 실정에 맞는 등록금 책정 허용, 7) 교육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등록금 산정방식, 8) 등록금 인상 여부가 아닌 고등교육 재정구조의 개혁으로의 변환, 9) 가계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공동 노력 필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발표 2: 대학 적립금의 현황과 과제(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모든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오해를 풀고 대학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학교와 재단이 등록금을 빼돌려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 일부 학교에서 관찰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후 감가상각분만 적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감가상각분의 적립도 쉽지 않은 상황임. 기부금 또한 큰 분류의 용도와 특정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님. 이월금도 그 중 일부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 자금운용상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월금을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이월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대학도 이에 대해 적극 설명해야 함.

○ 토론

- 기획처장: 구자명(공주대학교), 김갑룡(전주대학교), 남두우(인하대학교), 박순진(대구대학교), 박홍준(동아대학교), 송혁준(덕성여자대학교),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이정배(선문대학교), 한지영(조선대학교), 홍형득(강원대학교)
- 재정전문가: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정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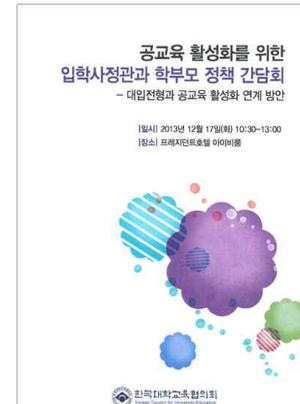
준렬(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학자금 지원 확대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고액등록금을 인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접근임. 대학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고,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이나 적립금 문제보다도 시급한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서비스의 질을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임.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을 다닐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등록금 동결이나 적립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대학이 재정을 비도덕적으로 운영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며, 주어진 제약 상황 내에서 대학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협력위원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학사정관과 학부모 정책 간담회

### 대입전형과 공교육 활성화 연계 방안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입학사정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12월 17일(화) 프레스디던트호텔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협력위원회 활동의 핵심주제인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개최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공교육 활성화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대입전형과 공교육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입학사정관, 학부모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본 대입전형 정책과

실제 사례, 공교육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앞으로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입학사정관제와 대입전형에서 찾는 공교육 정상화와의 연계점',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 연계점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주제발표에서 입학사정관들은 대입제도를 통한 고교교육의 활성화는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전형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요구되며, 국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교사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편차,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반영방법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적하였다.
- 참석자들은 대입전형과 공교육 활성화의 연계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고교 교과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화, 교육과정을 통한 고교와 대학간의 연계, 이를 통찰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육성, 대입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제4회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 포럼



-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12월 18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회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대학 보직교수 및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 및 교강사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포럼에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발주한 3차년도 위탁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를 토대로 한 7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1부 순서에는 손동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중앙대 송해덕 교수), “학부교육 실태 진단”(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교양 교과목 내용 분석과 그 내실화 방안”(한양대 박주호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2부 순서에는 “의사소통교육 성과진단”(성균관대 박정하 교수), “지식의 지형도와 과학기술 사회론”(부산대 김유신 교수), “인문학·예술 융복합 신규 교과목 <그림 읽기로 세상 보기>”(계명대 박일우 교수), “대학 유형별 교양교육과정 연구”(동국대 김정빈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4년에도 위탁연구 및 교과목 개발 연구를 토대로 핵심교양기초교육과정 개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13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 결과보고회



- 대교협은 2013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성과 공유 및 대학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2013년 12월 20일(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3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대학글로벌현장학습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의 해외인턴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여 대학교육 과정의 국제화 및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이번 결과보고회는 사업 참여 대학인 공주대, 명지대, 송실대 등 12개 대학관계자들과 사업심의·평가 등을 하는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올 한해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개선사안 등에 대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2013년은 사업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참여대학 성과평가(컨설팅)를 실시하였으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경북대, 중앙대, 부경대의 사례를 발표하여 참여대학 간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대교협은 2014년 대학글로벌현장학습에 대한 참여대학의 수요조사와 함께 대학들에게 파견학생의 전공과 연계된 인턴활동, 안전관리, 내실 있는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향후 대교협은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대학이 중개업체에 의존하기보다 대학 자체 국제화프로그램(인턴분야)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기타 ]

< 참고 > [2013 전국 대학 직능단체 현황] 자료집 발간 안내

□ 대교협은 [2013 전국 대학 직능단체 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대학총장협의회 15개
- 대학 부총장·학장·대학원장 협의회 19개
- 대학 처(국)장 협의회 8개
- 대학 팀(과)장 협의회 23개
- 대학 각종 협의회 25개



< 2013 전국 대학 직능단체 현황 자료집 > 이 발간되었습니다.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http://www.kcue.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간대학교육' 구독신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주간대학교육' 발간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의 대교협 동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교협 대외협력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919-3825)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